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that Affect Self-esteem among Vietnam War Veterans

한서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부교수 이인수*

Dept. of Elderly Welfare, Graduate School of Han-Seo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Lee, In-Soo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impacts of involvement in the Vietnam War on the self-esteem of the veterans in their later lives. In this study, 14 Korean male Vietnam War veterans from 55 to 63 years old were asked about the impacts of their war experiences on their self-esteem. From the analysis of the in-depth interview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the veterans perceived that their self-esteem improved with both internal and external impacts of their activities in Vietnam. The internal aspects that improved the veterans' self-esteem were recalling their positive memories of Vietnam War, such as being on duty at a war front for the sake of our country, doing volunteer work for the villagers, and becoming a masculine heroic figure in the family legend. The external aspects were positive attitudes and responses toward their war activities from their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Second, they also felt persistently frustrated with their recurring memories of involvement in killing human beings, experiences of negative family and social responses, and the side effects of herbicidal cyanide they suffer.

In this article,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standardized images and good-will episodes of the Vietnam War need to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improve public images on the veterans. Second, intensive adjustment programs for the families of older veterans in special needs should be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various veterans' societies and family counseling institutions, so that the spouses and children can be relieved from tension-laden contacts with the veterans and prevent violent incidents.

▲주요어(key words) : 베트남 참전용사(vietnam war veterans), 자아존중감 (self-esteem), 내적·외적 영향(internal and external impacts), 긍정적 기억 회상(recalling positive memories), 사회적 반응(social responses)

1. 서론

1. 문제의 제기

삶의 가치관 측면에서 살펴볼 때, 50대후반이후 노년기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행한 것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후세대에 선도적 이미지를 남기는 것을 매우 가치 있는 일로 믿으며(Atchley, 1990), 이러한 가치관을 실현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자아존중감

(self-esteem)」은 노년기 삶의 의욕과 미래지향적 행동을 좌우하는 근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Darley, 1984; King and Elder, 1997). 자아존중감은 노년기 심리적 복지를 구성하는 한 측면으로서 자신의 능력, 살아오면서 해온 일의 사회속에서의 중요성, 사회속에서의 존경 등 자신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감정이며(김도환, 2001; 신호식, 1993; Darley, 1984; Giarrusso and Bengtson, 1996),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은퇴와 배우자 상실과 같은 부정적 사건을 접하는 노년기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해주는 의욕인 것이다.

* 주 저 자 : 이인수 (E-mail : lee1252@hanseo.ac.kr)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요인은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김도훈, 2001; Darley, 1984; Giarrusso and Bengtson, 1996), 내적인 요인은 살아오면서 행한 것들을 스스로 회상하고 성찰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양심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인 반면, 외적인 요인은 가족과 친구, 이웃등 주위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하는 반응을 접하면서 사회속에서의 자신의 가치에 대해 느끼게 하는 요인이다.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한 것은 노년기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명제에 대해 모든 참전용사에게 적용되는 일관된 진리는 없으며, 전쟁의 특성에 따라 내적·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년기 자아존중감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교차적으로 미치는 양면성을 지닌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2차대전 참전용사들은 노년기에 이르면 자신의 참전에 대해 남성 상성성(masculinity)인 용맹성을 입증하고 후손의 안녕과 번영에 크게 기여한 의미 있는 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반면(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1995; King, King, and Fairbank, 1998),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약소국의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오랫동안 노력하여 이룩한 문화시설을 파괴하는 일에 몰두했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Modell and Hagerty, 1991; Tucker, 2000; Vietnam War Pictorial, 2003), 그리고 자신이 참전을 하여 희생한데 대해 국가와 사회가 정당한 사회·심리적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을 경험하며 사회로부터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King, King, and Fairbank, 1998)등 부정적 정서가 지배적이다. 즉,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한 경험은 노년층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관된 정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 전쟁의 특성에 따라 자신이 과연 존경받아야 할 의미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냉대받아야 할 무가치한 존재인지에 대해 번민하고 혼돈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매우 미묘한 일인 것이다.

미국인에 있어서 베트남전 참전은 결론적으로 노년기 자아존중감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다.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노년기에 이르러 전쟁중 경험한 살상행위(trauma & casualties)의 기억이 점진적으로 정서를 지배하면서, 참전에 대한 자부심은 희박해지고 수치심과 죄책감이 더욱 강해진다(Bloom, 1992).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베트남전은 약소국을 일방적으로 침략하고 제네바조약을 위반하여 고엽제를 대량 살포한 부도덕한 전쟁이며 그리고도 약소국에게 패배하여 미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전쟁이라는 사회적 비판이 우세하면서 더욱 가중된다(Parker, 1998; Tucker, 2000). 그리하여 미국내 전체 55세이상 고령자중 베트남전 참전용사 집단은 마약의존,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이웃과의 교류를 멀리하는 고립생활, 자살시도의 비율이 일반인 보다 유의하게 높은 사회문제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Bloom, 1992; Hendin and Haas, 1991; O'Toole and Cantor, 1995; Parker, 1998). 즉, 참전중에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과 참전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내적·외적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참전용사의 자아존

중감을 훼손시키면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룩한 중요한 업적이 결국은 자신을 노년기에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배반자적인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 베트남전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대규모로 해외에 파병한 전쟁으로서(국방연구소, 1998) 아직 참전용사의 노년기 삶에 대한 연구나 참전의 정치적 평가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걸프전과 소말리아 내전, 그리고 아프간 전쟁과 같이 미국이 주도한 대규모 전쟁에 한국군이 파병되고 대규모 전투병의 이라크 파병문제가 국가 중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미국이 주도한 전쟁에 한국인들의 독립적인 판단보다는 맹목적인 순응으로 해외에 한국군이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하는데 대한 비판적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파병 반대집단은 반대의 구체적 證據 사례로서, 고엽제 후유증을 비롯한 전상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신체적 고통, 그리고 참전이 초래한 동남아 사회에서의 외교적 고립등을 내세워 베트남 참전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내·외적인 측면에서 참전용사들의 자부심을 훼손시킬 부정적 측면을 여론화하고 있다(미디어다음, 2003: 한국방 송공사, 2003).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접하면서 참전용사들도 자신들의 정신·신체적 고통, 그리고 참전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국가적 무관심등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적인 측면에 관한 우려를 보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2003; 월남참전 전우복지회, 2003). 노년학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에 이르러 참전용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년기 삶의 최고 가치관인 자아존중감이 크게 훼손되는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자신의 양심적 가치관으로 볼 때 도저히 합리화 시킬 수 없는 일들, 예를 들어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에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일, 동료들 적으로 오인하여 살상시킨 일, 그리고 젊은 혈기에 이국 땅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이성을 잃고 주민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진 일들을 회상해보며 자책하고 번뇌하는 심리적 상황이 큰 문제점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월남참전 전우복지회, 2003; McNamara, 2003). 그리고 자신의 노년기를 번뇌와 자책에 사로잡히게 하면서까지 희생한 그 참전에 대해 사회적 반응이 점점 냉담해지고 있으며 복지혜택도 매우 미흡한 현실도 자아존중감을 크게 훼손시키는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사단법인 월남참전 전우복지회(2003)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전상자들의 고통의 심각성, 그리고 반미운동 세력에 의해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단지 외화를 벌기 위해 미국의 용병으로 나아가 무고한 베트남 민간인을 5천명이나 학살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부당함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정부의 정확한 진상조사 및 해명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행한 봉사활동과 국가경제 기여등 긍정적인 측면을 국민에게 알리고 위령비 건립 등을 통해 적절한 사회·심리적 보상을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참전으로 인한 자

신들의 고통은 가중되는 반면 이룩한 일의 가치는 망각되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등 노년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적인 요인들이 모두 위협받는 것을 경험하면서, 존엄성을 재정립 해줄 것을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대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베트남전이 끝난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고 한국의 참전용사들은 이제 50대후반이후 노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들에 대한 연구는 분명 새롭게 도전해야 할 노년기 주요 연구과제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희생한 사람들이 노년기에 이르러 자신들의 자아존중감이 위협받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진솔한 평가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한 진솔한 평가의 첫 단계로서, 우선은 용사들 자신이 과연 참전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였고 그 참전에 대해 이웃과 지역사회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과 사회적 반응이 참전용사로서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초보적이면서도 원론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그들의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대비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미국이 주도한 대규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문제가 국가 중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베트남전 참전의 부정적 측면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지만 참전용사들의 노년기 삶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참전이 자신의 노년기 자아존중감에 미친 내·외적인 영향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아래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년기에 이른 베트남전 용사들이 참전기간동안 경험하고 목격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자신의 회상과 성찰, 그리고 그 후 이웃이나 친구, 각종 단체, 혹은 언론매체등이 참전에 대해 보인 반응등 내적·외적 요인중 어떠한 부분들이 노년기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조사함.

둘째, 이러한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참전용사의 노년기 자아존중감 향상 및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대비책을 제시함.

III. 관련문헌 고찰

1. 베트남전의 배경과 특성

1961년 미국은 베트남의 공산화는 동아시아의 공산화를 연쇄

적으로 초래한다는 우려 때문에 베트남에 미정규군을 파병함으로써 군사적 원조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1965년 북부 베트남에 폭격을 시작하면서 베트남전쟁은 본격화되었다. 이때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25개국에 참전 요청을 했고 한국은 1964년 7월 비전투부대인 의료지원단과 태권도 교관단 파병을 시작으로 1965년에는 전투부대인 청룡부대와 맹호사단을, 1966년에는 백마사단과 주월한국군사령부 예하 지원부대를 파병하였으며(국방연구소, 1998) 베트남에서 철수하던 1973년 3월까지 8년 8개월간 연인원 32만명이 참전하여 5,000여명의 전사자와 16,000여명의 전상자, 그리고 70,000여명의 고엽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증증 전우회, 2003).

우리국군이 참전하게된 동기와 명분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남부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반공국가 공동방위체로서의 신의를 준수함은 물론, 1950년 6.25전쟁 당시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참전해준 16개국에 대한 보답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지위향상에도 일조가 되는 길이었다는 해석이 가장 우세하다(국방연구소, 1998;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03; 파월국군동우회, 2003; 파월 의무부대 동우회, 2003).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전 기간동안 살포한 고엽제의 80%가 한국군 작전지역에 살포되어 고엽제 후유증 환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공개되고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미국의 통상압력과 관세보복조치 등이 가중되고 미국이 주도한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해 달라는 요청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증증 전우회, 2003; 미디어다음, 2003). 다만, 전쟁을 주도하여 패전국 당사자가 된 미국에서는 이미 베트남전의 도덕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문헌이나 언론매체에서 모두 지배적인데 비해(Anderson, 2002; Bloom, 1992; McNamara, 2003), 아직 한국군 참전에 대한 비난은 반미단체, 해외파병 반대 동호인, 고엽제 피해관련 모임 홈페이지에 한정되고 있다. 그리고 대중매체에서도 참전 그 자체를 비난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으며 특히 참전의 구체적인 평가가 학술문헌으로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학술적인 검증을 거치지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베트남전은 한국군 참전용사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추정하게 하는 근거가 다수 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은 6.25동란이 종결된 지 불과 12년 만에 이루어졌기에, 철저한 국민적 반공이념에 의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명예로운 참전이었고 파병된 병사는 두고두고 명예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으나(국방연구소, 1998), 파병 용사중 6.25에도 참전했던 고참 하사관이나 장교들은 6.25와 베트남 전쟁을 비교해 보며 베트남전의 무모함과 불명예를 지적하며 참전용사들의 자부심에 혼돈을 주고 있다. 베트남전은 우선 국제사회에서 정한 전쟁윤리관을 쌍방 모두가 전면 무시한 비윤리적 전쟁이었다. 베트남에는 북 베트남 정부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공산월맹

군, 지하게릴라인 베트남,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자유월남군이지만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사상교육을 받은 이른바 이중 간첩, 그리고 야침에는 미군이나 한국군 편에 있다가 저녁에는 월맹 지하조직원으로 시시각각 즉흥적으로 변하는 밀렵속 주민 등등(Bowman, 1986; McNamara, 2003) 명확한 사상이나 신념보다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전쟁만 끝나기를 고대하며 자신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집단에게 즉흥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아버지는 월남군 장교이며 아들과 딸은 월맹군이자 지하 게릴라인 가족이 일상화된 곳에서 싸우며, 나는 지금 누구를 상대로 왜 싸우며 내가 죽여할 사람은 누구고 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명분에 대해 병사들이 큰 懷疑를 가졌던 전쟁이다(과월국군동우회, 2003). 이러한 회의는 과월국군동우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 「비망록」에 실명으로 기고한 수기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배경요인 고찰 1: 어머니는 한국군 정보원, 큰아들은 월남정부군, 작은 아들과 딸은 인민해방군〉

...돈을 전달해주는 것(한국군에 협조한 댓가)이 고마워 까맣게 써어가는 이빨의 노파는 연신 "감은 옹"(선생님 고맙습니다)을 연발하며 물에 빠진 생쥐 물골을 한 내가 측은하여 하룻밤 자고 가란다. 큰아들은 현재 월남정부군이며, 작은아들과 딸은 인민해방군(절대로 베트남이란 말을 않겠다)이기 때문에 자기 집은 절대 안전하다는 것이다. 즉 낮에는 큰아들이, 밤에는 작은 아들이나 딸이 당신을 보호 해 주겠다는 말이다.<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 「비망록」에 게시된 글을 발췌 인용>

그리고 월맹군과 게릴라들은 열악한 경제조건하에서 과거 100여년간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국가와 싸워오면서 강대국 신무기에 대항할 독특한 재래식 방법들을 많이 개발해 왔는데, 전 국토에 걸쳐 200km에 해당하는 지하토굴에 숨어서 생활하며 독화살이나 함정등 밀렵에서 야생짐승을 사냥하는데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미군과 한국군에 저항했다. 그렇기에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미군도 부득이 고엽제라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훗날 제네바조약 위반의 비난을 받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데(과월국군동우회, 2003; McNamara, 2003), 오랫동안 서구열강과 싸워온 월맹군의 철저한 방어체계에 대해 참전 미군의 수기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배경요인 고찰 2: 200km 동굴속에 숨은 적〉

...베트남 전쟁은 참전이라고 보다는 열대지방 원주민이 파놓은 함정으로 외계인(external inhabitant)이 걸어들어온 일이다(중략) 베트남이란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100년동안 프랑스와 싸우며 전 국토를 거미줄처럼 200km에 걸쳐 파놓은 터널속에 감추어 진 그런 나라다(중략) 동굴을 수색하다보면 주둥굴이 나오기까지 150미터쯤 전진했을 때 다시 좌우로 갈라지는 동굴이 나왔다. 100미터 정도를 전진해 들어가니 마침내 계단식 동굴이 왼쪽으로 꺾어진다. (중략) 이런 곳에 각종 의류 및 식량, 문서가 한아름 들어 있었다.<인터넷 홈페이지

McNamara(2003)의 저서 11장 발췌번역>

그러한 와중에 월맹과 미군 혹은 한국군은 서로 속임수로 싸우거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등 제네바조약에 명시된 윤리관이 완전히 무시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은 훗날 불명예스런 전쟁에 참여하여 잔혹행위를 한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는 집단으로 전략하게 되었다(Modell and Hagerty, 1991; McNamara, 2003). 따라서 참전용사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전쟁의 특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정하는 명예로운 참전이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전쟁의 실상이 공개되면서 자부심이 퇴색하고 번뇌와 수치심이 증폭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2. 참전용사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요인

미국은 베트남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베트남전 파병은 아직까지는 참전용사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측면과 훼손시킨 측면이 함께 공존한다. 참전이 참전용사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한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 국군장비의 현대화 및 실전능력 배양이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상태는 세계 최하위 빈곤국가로서 기업의 해외진출은 생각지도 못할 때였는데 베트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할 경우 미국측의 지원은 1966년 발표된 한-미 합의사항인 Brown각서에 명시되었듯, 한국군의 현대화 장비지급, 참전 한국군의 일체의 경비부담, 해외참전 전투수당 지급, 베트남에 건설사업 참여, 경제개발 차관 제공, 경부고속도로 건설지원등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조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베트남전 참전을 계기로 농업위주 산업구조에서 공업화 국가로 발전하였으며 국군의 현대화와 실전능력 배양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으며(국방연구소, 1998;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03; 과월국군동우회, 2003),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베트남전 용사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문제 요인

하지만 최근 들어 참전용사들은 노년기에 이르러 내·외적인 요인 모두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훼손되는 환경을 경험하기도 한다. 자아존중감을 훼손시키는 내적인 요인으로는, 자신의 양심적 가치관으로 볼 때 도저히 합리화 시킬수 없는 일들을 회상해보며 스스로 자책하고 번뇌하며 자신은 이 사회에 큰 죄를 지은 존재라는 부정적 감정을 갖는 경우를 들수 있을 것이다. 회상은 노년기에 자신의 생을 회고하는 보편적 정신적 과정으로, 노인들은 생의 많은 부분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기억할 내용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저장되어 있으며, 노인들이 대화할 때 젊은 사람보다 과거에 관한 대화를 더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경향 때문에, 고령에 이룰수록 회상의 기

회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다(Merriam, 1989). Butler(1963)는 회상이란 노인이 과거 경험을 점차적으로 의식해 가는 과정이며, 특히 살아오면서 이해되지 않은 갈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적응으로서 더욱 반복적으로 회상한다고 하였다. 노년기에 이른 참전용사들은 노년기 특유의 심리적 반응인 회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반복해 생각해 내면서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결론지어 자아존중감을 서서히 상실해 간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일들은 6.25 한국전쟁관련 자료에는 없고 베트남전 관련 자료에만 있는 매우 특이한 경험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자면 호송하기 힘든 포로를 몰살시키는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만류하지 못한데 대한 죄책감, 그리고 밀림속 동굴전투에서 실수로 의형제처럼 지내던 전우에게 총을 쏘아살상시킨 데 대한 후회 등이 주류를 이루며, 과월국군동우회(2003)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나의 참전일기」에 실명으로 기고한 시기에는 다음과 같이 생생하고 처절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포함되어 있다.

<내적 문제요인 고찰 1 : 포로를 몰살시키고 확인사살까지>

...20여명을 산골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몰아넣고 한명씩 내려가게 하면서 총살을 시키기 시작하여 마지막 포로를 총살시킨 후, 이들은 여기에서 확인 사살한다며 술방을 세례를 가한 후 짐 중 사격을 했다...<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나의 참전일기」에 게시된 글을 발췌 인용>

<내적 문제요인 고찰 2 : 혼동속에 동료들 살상>

...가물가물 보이던 적을 더 가까이 끌어당겨...(중략) 그때 같은 순간 무언가 예감이 이상해 신참소년병이 생각나 누구냐하니 나야하면서 끌어안는다! 들어갔든 코스는 피하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나의 참전일기」에 게시된 글을 발췌 인용>

<내적 문제요인 고찰 3 : 무분별한 처형>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이들은 여자들마저 처형하기 시작했다. (중략) 사살하지 말고 포로들을 본대로 후송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 물으니...(중략) 월남 군 대위님의 말씀 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라는 말 한마디 남기시고 병력을 다른 작전지로 이동시키고...(중략) 번뇌의 생각을 다시 한번 넘어면서...<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나의 참전일기」에 게시된 글을 발췌 인용>

한편 자아존중감에 심한 타격을 주는 외적인 요인으로는 자신의 업적을 낮게 평가하거나 냉대하는 사회적 반응, 혹은 자신들에게 적절한 물질적·심리적 보상을 해주지 않는 정부의 태도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외적 요인의 예를 소개하자면 ① 베트남전의 실상에 대한 명확한 재조명 없이 단편적인 숫자만을 놓고 자신들을 부도덕한 학살자로 매도하는 반정부단체의 주장, ②베트남전에서 행한 한국군의 선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③베트남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이유로 참전용사들의 주장을 고의적으로 축소시키고 보상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등이 있다(월남참전 전우복지회, 2003). 그들이 이러한 불만을 직

접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우리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생생하고 처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외적 문제요인 고찰 1 : 자손들까지 오해를 받음>

...한국전쟁은 북측과 남측으로 나뉘어 한 전쟁으로서 적군과 아군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전쟁이었다. 그러나 월남전은 사선 없는 전쟁 지역으로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전쟁이었다...(중략) 월맹군, 베트남, 그리고 월맹군이 교유해서 월남가족들에게 침투시킨 적이 있었다. 월남민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밤에 아버지는 베트남이 되고 아들은 월남군이 되어 각각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비극적인 전쟁이었다...(중략) 오늘의 현실은 월남에서 양민을 약 5000명 학살했다는 누명을 씌워 32만 명의 고귀한 딸과 눈물과 피와 목숨을 바쳐 국가와 민족의 안보와 번영을 이룩한 참전용사들의 자손들까지 흉악한 양민학살의 역적의 자식들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우리의 주장」에 게시된 글을 발췌 인용>

<외적 문제요인 고찰 2 : 선한 행동은 외면 당함>

...우리 국군의 당시의 목표는 "열 사람의 적은 놓쳐도 한 사람의 난민을 구하라"였다. 전투가 없거나 쉬는 상태에서는 4모작을 하는 월남 주민들을 도와 대면사업을 하곤 했다. 따라서 우리 국군은 월남 주민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다.(중략) 고통을 안고 사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길은 정부에서 하루라도 빨리 참전용사들을 위한 기념탑이나 국군묘지에 추모비라도 세워주는 일일 것이다...<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우리의 주장」에 게시된 글을 발췌 인용>

<외적 문제요인 고찰 3 : 베트남과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 참전용사의 고통을 축소>

...참전 군인들에게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고 이유는 지금의 베트남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고 베트남 정부가 과거 적대 국가와는 교역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월남 참전 군인들을 자구 세상 밖으로 끌고 나올 경우 생기는 외교적 불이익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월남참전 군인들 스스로 자구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한 예로 지난 86년에 고엽제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92년 개최한 월남참전군인 전국 만남의 장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판 「우리의 주장」에 게시된 글을 발췌 인용>

<외적 문제요인 고찰 4 : 정부의 무관심>

...파병될 당시 국무총리는 '살아만 돌아와라. 나머진 우리가 다 책임진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우리를 월남으로 보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껏 정부는 모두 참전병사들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 기념탑 하나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우리의 주장」에 게시된 글을 발췌 인용>

<외적 문제요인 고찰 5 : 복지혜택이 매우 미약함>

...기껏 준 것이 월남전 증서와 참전증인데 이것으로는 지하철도 무료로 타지 못한다. 겨우 공원에만 무료로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우리의 주장」에 게시된 글을 발췌 인용>

이상의 생생한 절규를 고찰해 볼 때, 참전용사들은 포로를 몰살시킨 죄책감, 실수로 의형제처럼 지내던 전우에게 총을 쏘 부상시킨 데 대한 후회, 자신들의 고통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선한 행동은 공개되지 않고 근거 없는 비난이 난무하는 사회적 현실, 그리고 베트남과의 교역을 위해 과거 적대국이었던 이미지를 축소시키려고 참전용사들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를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들이 30년전에 행한 잔인한 일들을 두고두고 회상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기여한 공로에 대해 사회와 정부에서 냉대하는 것을 바라보며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불명예와 명예훼손을 크게 우려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베트남전 참전이 국가에 기여한 가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므로 참전용사의 노년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며, 반면 전투 중에 발생한 베트남전 특유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한 부정적 자아성찰이나 사회적 반응처럼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킬 내·외적 요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에, 바야흐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단편적 수기의 발췌가 아니라 참전용사와의 직접면담을 통해 자세한 조사연구를 하고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 5개 대학에 부설된 평생교육원에서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55세이상 남성중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 참전경력이 있는 사람 6명, 그리고 그들의 소개를 받아 조사에 응한 서울지역 참전동우회원 8명등 총 14명을 직접 면담하여 자유로운 구술을 정리한 질적 연구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참전용사의 어떠한 체험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노년기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대상자는 모두 자아존중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체험한 사건과 자아존중감과 연관성을 추리할 수 있는 건강한 고학력자이어야 했다. 따라서, 부득이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교양강좌 수강생중 담당교수진들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응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절친한 친구로서 교교졸업 이상자들만 연구에 참여시켰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55 - 63세고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으며, 78.6%인 11명은 불교나 천주교, 기독교등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3명은 베트남을 떠나 귀국할 당시 위관급 장교였고 4명은 하사관이었으며 나머지 7명은 일반 병사였다<표1>. 참전기간은 1966년부터 71년사이에 12 - 14개월이었으며 모두가 해병대나 육군으로서 지상전투에 참가해본 사람들이었다.

< 표 1 > 조사대상자 특성(N=14)

번호	연령	귀국당시 계급	특이사항
1	58	해병하사	건축업에 종사하며 대체로 건강함.
2	55	해병하사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며 고엽제 후유증 경증으로 분류되어 월4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음. 가끔 전쟁중 부상당한 순간의 악몽으로 수면장애를 겪음.
3	61	육군중위	식당을 경영하며 대체로 건강함.
4	60	육군상병	슈퍼마켓을 경영하며 경증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 판정을 받았으며 피부질환과 근육통을 호소함.
5	59	육군하사	여행사를 운영하며 대체로 건강함
6	57	해병중위	식당을 경영하며 대체로 건강함.
7	60	육군상병	식당을 경영하며 경증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 판정을 받았으며 피부질환과 협심증을 호소함.
8	58	해병중위	대학행정직원으로 대체로 건강함.
9	59	육군상병	부동산업을 하며 대체로 건강함.
10	56	육군병장	대학행정직에 종사하며 대체로 건강함.
11	62	육군상병	건축업을 하며 대체로 건강함.
12	63	육군중사	식자재 도매업을 하며, 총상을 입었으나 후유증은 없음.
13	61	육군상병	공무원으로 퇴직후 연금으로 생활하며 대체로 건강함.
14	57	육군병장	문구점을 경영하며 대체로 건강함.

14명중 2명은 작전중 총탄이나 파편으로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신체기능에 장애를 가지지는 않으며, 2명은 輕症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판명되어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었다. 이들 중 12명은 조사당시 음식점, 건축업, 부동산 중개 등 자유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명은 대학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2001년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2단계 과정에 의해 이루어 졌다. 예비조사에서는 평생교육원을 통해 선정된 16명의 참전용사 2-3명씩과 연구원 1-2명씩 총 4-5명이 모여 식사를 하며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스케치 수준의 집단면담을 하였으며, 본조사에서는 위 16명중 연구주제에 부응하는 답변을 받아내기 힘들다고 판단된 2명을 제외한 14명을 연구원 1명과 참전용사 1명의 개별면담으로 조사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연구자가 조사대상자들에게 자아존중감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러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앞서 문헌고찰 부분에서 인용된 예를 들어가며 개념정리

를 하였으며, 이러한 요인에 해당하는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자세하게 묘사하도록 권유하였다. 또한 베트남전 참전당시 자신의 계급, 현재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그리고 참전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현재의 자아존중감에 미친 영향의 결론적 측면(예: 전반적으로 나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거나 훼손시키는지 여부)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을 요약정리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정리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하여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단, 예비조사과정에서 2명의 대상자는 연구주제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무용담이나 미군들과 어울리던 흥미위주 얘기만을 진술하고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부득이 본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예비조사과정에서, 전투중에 경험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다는 진술한 답변을 유보하며 '내가 직접 경험하였든 아니면 가까워서 목격하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누구에게든 항상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나' 고 반문하거나 말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기에, 본조사의 질문 중 참전중의 경험과 관련된 질문 문구는 「참전기간중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혹은 전우가 하는 행동을 직접 목격한 것중」으로 수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예비조사를 거친 14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문제 질문을 하였다. 면접은 연구자 3명이 직접 하였는바, 연구자들은 모두 사회학 석사학위이상을 소지하고 대학 강의 경험이 풍부한 남자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노년기에 이른 참전 용사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요인을 조사하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참전용사의 노년기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대비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은 조사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자아존중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요인의 개념적 정의(conceptualized definition)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으며 특히 설명에 앞서 김도환(2001), Darley(1984), Giarrusso and Bengtson(1996)의 연구중 자아존중감 정의 및 척도가 기록된 부분을 요약번역하여 제시하며 읽도록 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정의 : Darley(1984)와 Giarrusso and Bengtson(1996)의 연구에 나오는 정의개념들중 공통된 내용을 정리함〉 - 노년기 심리적 복지를 구성하는 한 측면으로서 자신의 능력, 살아오면서 해온 일의 사회속에서의 중요성, 사회속에서의 존경 등 자신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감정.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요인의 정의 : 김도환(2001), Darley(1984), Giarrusso and Bengtson(1996)의 연구에 나오는 정의개념들을 정리함〉 - 내적인 요인은 살아오면서 행한 것들을 스스로 회상하고 성찰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양심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하는 요인인

반면, 외적인 요인은 가족과 친구, 이웃등 주위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하는 사회적 반응을 접하면서 사회속에서의 자신의 가치에 대해 느끼게 하는 요인임.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는 참전이 노년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 요인을 모두 진술하도록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질문내용〉 - 귀하가 참전기간동안 경험하고 가까워서 목격한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회상하고 성찰하면서(내적 측면), 혹은 그후 가족과 이웃이나 친구, 각종 단체, 혹은 언론매체등 사회에서 참전에 대해 보인 반응중(외적 측면) ①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②노년기에 자신을 존경스럽고 가치있는 존재라는 느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길이와 갯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며 한사람이 한 개만의 진술을 한 경우와 여러 개 진술을 한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1인당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답변내용은 모두 녹음한 것을 재생한 후 사투리나 속어나 베트남 언어나 참전용사들의 은어가 혼합된 구술을 최대한 표준어 문장에 가깝게 재정리하고, 재정리된 내용을 내적요인과 외적 요인들로 구분한 뒤 자아존중감을 상승시키는 부분과 감소시키는 부분을 다시 구분하고 답변내용중 비슷한 영역별로 범주화하였다. 재정리되고 범주화된 답변은 최종적으로 3명의 연구자들에게 검토하게 하여, 지나치게 과격하여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사실여부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예: 핵무기를 사용했다거나 북한군과 교전했다는 얘기 등등)들을 제외시키고, 위 문헌고찰에서 인용한 사례들에 준하는 정도의 현실적인 답변들을 조사에 이용하였다.

IV. 결과해석

본 연구의 본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14명중 대다수인 9명은 내·외적 측면에서 볼 때 베트남전 참전이 전반적으로 노년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고 믿는 반면, 나머지 5명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킨다고 믿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그 진술결과를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1. 향상요인

1) 내적 요인

(1) 용맹성 확립과 가문의 명예

참전기간동안 경험하고 목격한 것들 중 스스로 회상하고 성찰하면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게 하는 내적 요인으로는, 참전

이라는 것 자체가 용맹스런 남자의 상징성을 확립하고 가문의 명예가 된 일로 느껴지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자식의 병역기피로 구설수에 오르는 정치지도자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공산군과 싸우는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가족과 자손에 자랑스러우며, 가족과 친척들이 모일 때 무용담을 들려주며 가문의 자랑스런 남자임을 과시하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며, 그리고 참전사진 액자를 걸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자손대대로 전설적인 신비의 모습으로 남을 거라는 기대를 하며 가치 있게 느끼고 있음을 진술하였다.

특히 참전을 통해 친지와 이웃에게 남자로서의 강력한 상징성과 先世代로서의 신비스런 이미지를 강하게 고정시켜 주는 것이 노년기에 남성적인 성역할이 감소하므로써 생길 수 있는 좌절감을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성역할 태도」나 「신비의 모습(Mythical figure)」과 관련된 고전적인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과중한 육체노동이나 생계책임을 우선적으로 감수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을 지배하는 성역할 개념을 전통적인 가족규범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전통적 역할구조에 큰 애착을 갖는다(박숙자, 1978; Bowen and Orthner, 1983; Scanzoni and Fox, 1980). 그러나 노년기에는 신체기능 감소와 은퇴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남성역할 수행 능력이 감소하는데, 이러한 남성역할 감소를 경험하는 충격을 가사분담이나 손자녀 돌봄과 같은 여성역할 증대를 통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응하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기도 하지만,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부족하고 전통적 규범 애착이 너무 강할 경우 노년기 남성역할 감소가 좌절과 무기력감을 유발하기도 한다(Bowen, 1989; Burtler and Lewis, 1973). 이러한 노년기 좌절감을 극복하는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남자로서의 강력한 상징성(masculine symbolism)을 획득한 데 대한 강한 기억과 자랑거리, 혹은 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未知와 신비의 모습(mythical figure)을 유지하는 것이다(Atchley, 1990;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1995). 본 연구결과, 베트남 참전용사는 이역만리 전장에 참여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와 가족을 지켰다는 사실이 노년기에도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 규범을 지탱해주며 신비스런 모습을 유지해 주는 원동력이라 믿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이 자신의 회상과 자아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 #1: 한번 참전용사는 영원한 참전용사—기력과 할 일은 줄어들어도 마음은 항상 자랑스럽다〉

...한번 참전용사는 영원한 참전용사다. 비록 나이가 들면서 기력은 줄어들고 할 일이 없어지지만 마음은 영원히 참전용사로 남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다. 6.25때 높은 분들 자체는 다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미군 사령관 아들과 중국 모택동 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다가 죽거나 다쳤다고 그리고 요즈음 우리나라 높은 분들 아들이나 사위중 병역 면제자가 일반인 보가 더 높다느니 어찌느니 말이 많은 이때, 내가 그래도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용맹스럽고 남자다운 가장으로 만들어 주었고 내 집안을 두고두고 자랑스럽게 할 것이라 믿으며, 노인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나 자신에 대해 정치지도자 보다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한다...<육군상병 출신 참전용사(번호11)의 구술을 재정리함>

〈사례 #2: 친지들 앞에서 무용담을 들려주는 영웅〉

...추석이나 설날에 친척들 모이면 으레 율남갔다운 얘기를 물어본다. 흥미진진하니까. 베트남과 싸우던 얘기며 미군들과 친하게 지낸 얘기 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영웅이 된다. 몇번을 친척들 모일 때마다 얘기했는데, 모두들 항상 새로 듣는 듯 하냐도 싫증내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준다. 나이 먹어 가면서 뭐 기죽고 우울한 일 있다가도 가끔씩 그런 자리가 생겨,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던 기억을 되새길 기회가 주기적으로 온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전혀 겪어보지 못한 신비의 얘기를 그렇게 두고두고 해주며 역사의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게 늙어가면서 큰 낙이 된다. 무용담을 들려주던 기억을 회상해보면서 나는 집안의 영웅이 될 거라 믿으며 내가 세상을 살아온 가치를 느낀다...<해병하사 출신 참전용사(번호1)의 구술을 재정리함>

〈사례 #3: 안방에 걸린 사진액자가 보물이 될 것〉

...안방에 걸린 내 참전기념 사진은 오래 전 아역만리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두고 자손에게 전해주는 전설이 될 것이다. 야자나무 아래 M16을 들고 찍은 모습의 사진 액자가 안방에 걸린 것을 수십 년간 밥먹을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외롭거나 힘들 때 바라다 보면 큰 위안이 되었다. 그때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무슨 고생인들 웃어넘길 일이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주름살이 늘어나도 그 액자를 바라보고 내가 이 나라에 좋은 일을 했음을 기억하며 위안을 삼는다. 그 신기한 모습의 사진액자는 두고두고 자손 대대로 여기 걸려서 나의 참모습을 전해주는 보물이 되리라 믿는다...<육군상병 출신 참전용사(번호9)의 구술을 재정리함>

(2) 봉사활동에 대한 기억

참전기간동안 전투 못지 않게 방역 및 질병예방 활동, 주민들에 대한 봉사와 구호활동, 재건사업, 교육활동, 심지어는 영농 기술 보급 등을 하던 일들도 나이를 먹으며 혼자서의 회상이나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자주 반복적으로 기억되면서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녀들과 그 친구들에게 그러한 좋은 기억을 회상하여 얘기하면 그러한 긍정적 경험의 기억이 생생하게 보존되어 더욱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Coleman (197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노년기에 회상을 통한 대화가 젊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된 기억을 나누어줌으로써 희귀한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가능하게 해주어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용사들의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는 방역사업이나 예방접종, 집을 지어주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것, 교량건설이나 제방

축조등 재건사업, 태권도와 한국어 가르치는 일, 그리고 타작할 때 쓰는 輪轉機를 보급하여 사용법을 전수시키던 일들을 예로 들 수 있는 바, 조사대상자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자가 재정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 베트남의 흑사병은 한국군이 없애주었다〉

...살아오면서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뭉뚱하게 만든다. 베트남에 가서 싸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방역활동도 하고 예방주사도 놓아주었다. 가끔은 흑사병을 옮기는 쥐벼룩을 없애기 위해 들쥐를 잡으러 다닐 때도 많았고 들쥐에 서식하는 쥐벼룩을 관찰해 흑사병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미군은 덩치만 컸지 섬세함이 없어 그런 일은 한국군이 도맡아 했다. 소문에 의하면 한국군 덕분에 흑사병이 없어졌다고들 했다. 참전용사들이 해낸 그런 놀라운 비화를 가끔 자식과 그 친구들에게 얘기해주며 그들이 놀라던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참전이라는 것에 대해 두고두고 흐뭇하고 자랑스럽고 가치 있게 느낀다...<육군병장출신 참전용사(번호14)의 구술을 재정리함〉

〈사례 #2: 부순 것보다는 지어준게 훨씬 많다〉

...한국군은 베트남에 가서 때려부순 것보다는 지어준게 훨씬 더 많다. 폭격은 미군이 하니라 솔직히 우린 부순 것은 없다. 한국군은 찾아가 집도 지어주고 다리도 놓아주는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좋은 일을 할 때 베트남 주민들이 고마워하던 모습이 가끔 꿈속에 나타나고 두고두고 회상되면서 크게 위안이 된다...<해병하사출신 참전용사(번호2)의 구술을 재정리함〉

〈사례 #3: 타이한 넘버원〉

...태권도 사범들이 많이 진출하였고 학교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베트남은 열대지방이라 4모작을 하는데 타작할 때 항상 손으로 벼를 떨어내는 게 보기 딱해 그때 한국에서 개발된 타작하는 輪轉機를 베트남에 보급해 주었다. 한국에서 농사짓다 파병된 병사들이 그 윤전기로 벼단을 떨어내는 것을 가르쳐주니 주민들 열명에서 하루종일 하던 일을 두명에서 해치우며 타이한 넘버원(한국인 최고)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던 일이 기억날때면 참전용사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느낀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자식이나 이웃이나 후배들 앞에서 가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기회가 나의 그 좋은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해준다. 윤전기나 베트남 농사일등에 대해 지금 젊은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그런 봉사활동 기억들이 더 생생히 남아 나의 존재가치를 강하게 느끼게 해준다...<육군중위출신 참전용사(번호3)의 구술을 재정리함〉

(3) 경제개발과 과학 및 의료기술 발전에 대한 확신

또한 용사들은 참전이 가문의 명예를 가져왔다는 믿음이나 봉사활동에 대한 기억 외에도, 참전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국가적 이익을 직접 바라보면서 참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이 진술한 국가적 이익은 이제까지 참전용사단체나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고전적인 내용(예: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공업화)에 비해 매우 세부적이며 특이한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이익과 관련된 자부심의 사례는 베트남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수입해온 막대한 물량

의 전쟁부산물(예: 고철, 재활용 용지 등)을 가공하는 산업이 발전하였을 것이라는 믿음, 미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터득한 신무기 사용과 여러 가지 기계사용기술이 결국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믿음, 그리고 전쟁부상자들을 치료하면서 터득한 의료기술이 한국의 의료발전에 기여했다는 믿음인 바, 조사대상자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자가 재정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 포탄 탄피로 어린이 놀이터 짓는 것을 바라보며〉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들 덕분에 공장이 많이 생겼다고 믿는다. 전쟁하고 나면 산더미 같이 쌓이는 고철이며 폐지를 군함으로 헐값에 들여와 그걸로 다 큰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먹고사는 것을 많이 보았다. 155mm 포탄 탄피로 별별 궁리 다 짜내 요리조리 구부리고 붙여서 국민학교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것을 보았고 깡통으로 난로 연통도 만들고 폐지를 가공해 백지를 만드는 것도 보았다...<육군하사출신 참전용사(번호5)의 구술을 재정리함〉

〈사례 #2: 중화학 공업과 호주이민이 어디서 왔는가?〉

...호미질 해서 보리밥이나 겨우 먹고살던 나라에서 갑자기 중화학공업이 어찌고 호주이민이 어찌고 사치스런 말들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미군들 따라다니며 대포고 탱크고 미사일이고 비행기고 허구한날 뜯었다 맞추었다 하구, 대민사업 한다고 불도저 물고다니는 기술자들 파견해 기술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중화학 공업도 발전한 것이고 호주 기술이민도 베트남 기술자들이 전쟁 끝나고 그쪽으로 이민 가는 것을 많이 보았다...<해병하사출신 참전용사(번호1)의 구술을 재정리함〉

〈사례 #3: 하루종일 수술하여 목숨을 구해준 경험이 의료선진국 만들었다〉

...월맹군은 투쟁정신은 강하지만 군의관이 별로 없는 게 큰 허점이라 부상당한 자기들 편을 버려두고 갔지만 우리가 데려다가 치료해준 일이 많다. 참전이 처음에는 의무부대 파병을 선봉으로 하였기에 우리 군은 의료진 비율이 매우 높았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의료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이 많아져 한국을 의료선진국으로 만들었다. 전쟁이란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원래 많은 법이다. 군의관과 위생병이 하루종일 적군이고 아군이고 민간인이고 가리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여 살려내는 것을 보았는데, 특히 미군의 의료장비와 약품지원에 한국군의 손기술이 합쳐져 큰 효과를 보았다. 이런 전문적인 의료활동 경험이 많이 축적되면서 결국 우리나라를 의료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믿기에 참전의 가치를 높이 산다...<육군병장출신 참전용사의 구술(번호10)을 재정리함〉

2) 외적 요인

(1) 대중매체를 통해 국가가 인정해 준 자랑스러운 일
참전용사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외적 요인에 대해서 고찰해 보면, 우선 교과서나 TV드라마 등 대중매체를 통해 참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일이 자신의 존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관되게 공산주

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파병되었다고 평가되어 가끔 어린아이들로부터 존경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베트남전을 소재로 한 TV드라마가 방영될 때 이웃에 사는 젊은 이들이 무용담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겪으며 이러한 일들이 자신이 가치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던 바, 조사대상자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자가 재정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존경어린 시선〉

...솔직히 베트남전은 죽도록 고생하고나서 뒷말도 많은 게 사실이다. 반미운동 때로 때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 전쟁이라는 말 듣는 것은 참 싫다. 그러나 천진무구한 이 나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은 교과서에 좋게 기록된 내용을 보고 우릴 좋게 생각한다. 바른생활 교과서나 어린이 잡지등에 공산화를 막기위해 베트남에 참전했다는 얘기가 많으니 어린이들은 우리를 아주 존경하고 그곳에서 있었던 얘기를 호기심 있게 듣는다. 가끔은 어린이들이 숙제를 하러 나를 찾아와 그곳에서 좋은 일 한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존경 어린 시선을 대하며 나는 자랑스럽게 늘어간다고 믿는다. 내가 어린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 내 손자들도 당연히 나를 존경할 것이라 믿으며, 참전이야말로 가치 있는 노년을 보내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라 믿는다.<육군상병출신 참전용사(번호13)의 구술을 재정리함>

〈사례 #2: 드라마 「머나먼 송바강」의 효과〉

...TV드라마 한편이 나를 잘 대변해 준다. 머나먼 송바강이란 드라마는 참전용사들의 삶의 애환을 있는 그대로 과장없이 표현한 것이다.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순수한 열정으로 참전하여 최선을 다해 싸우고 베트남 주민들을 위해 인간적인 정을 쏟고 봉사하는 내용은 국민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우리의 가치를 잘 일깨워 준 것이다. 그 드라마가 두고두고 비디오로도 나돌면서 주위에서 우리에게 동정과 존경을 보내는 것을 역력히 느낀다. 이웃에서는 그 영화에서 보니까 이러저러한데 그런 얘기좀 들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나는 정말 참전을 하였기에 이 사회의 소중한 존재로서 노년기를 보내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육군하사출신 참전용사(번호5)의 구술을 재정리함>

(2) 의지가 강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일

참전용사는 힘든 생존과정을 극복한 사람이기에 무슨 일이든 의지력이 강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이웃과 직장에서 사고 있으며, 특히 군대와 예비군 사회에서, 미군들과 함께 실제 작전에 참여한 경험이 많기에 만약에 전쟁이 날 경우 나라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재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자신을 가치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다.

미국이나 유럽경우 젊은 시절 수행한 중요한 역할이 노년기에 이르러 과거 함께 일하던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단체(social group)나 지역사회 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Atchley, 1990). 군인이나 경찰관, 혹은 소방관 출신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노인조직에서 지역사회 소방관리(예: 화재예방, 산불진화, 인명구조)에 대해

현직 소방관에 준하는 활력 적인 기여를 하거나, 공장노동자 출신 노인들로 구성된 소규모 모임에서 지역사회 공장의 생산에 필요시 간헐적으로 일하면서 예비근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그 예다. 본 연구결과 한국의 참전용사들 역시 미국이나 유럽의 예처럼, 재향군인회와 참전동우회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결속력을 입증하는 다양한 행사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과 애국심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이러한 사회적 인정이 노년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자가 재정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 참전용사단체는 보통사람과 다를 것이라는 주위의 기대〉

...참전용사들은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기에 무슨 일이든 잘 해낼 것이라는 주위의 인식이 나의 자아존중감을 크게 높여준다. 주위의 이러한 기대는 우리 참전용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수십년간 서로를 격려하고 봉사활동을 해오는 것을 보면서 더욱 확고해진다고 믿는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와 동네 골목길이 많이 망가졌는데 통반장님이 참전동우회원들을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 엄두도 못내는 일인데 큰 일 해낸 분이니 잘 해주실 거라 믿어 부탁드린다고 하여, 전우회원 몇과 동네 청년들하고 길을 고쳤다. 동네든 직장이든 다른 사람들이 엄두도 못내는 일을 그래도 우리가 해낼 것이라 믿는 사회의 기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육군중위출신 참전용사(번호3)의 구술을 재정리함>

〈사례 #2: 참전용사 무서워 김일성이 못 쳐내려왔다는 소문을 접하며〉

...정확히 어디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근거는 모르나, 결국은 베트남 참전용사 아니면 김일성이 벌써 여러 번 쳐내려 왔을 거라는 소문을 들으며 세월을 보냈다. 군대에서도 장군 진급하려면 참전경력이 우선이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우리들에 대한 존경은 대단했다. 항상 우리 참전용사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 나라를 지키는 힘으로 믿는 분위기를 느꼈었다. 군대와 예비군 사회에서는 이남에는 실제로 싸워본 사람들이 30만이 버티고 있기에 북한 김일성이 못 내려 왔다는 믿음이 정설이었다. 내가 이 나라를 지켜준 큰 힘이었던 주위의 인식이 그래도 황혼기의 큰 낙이다.<해병하사출신 참전용사(번호1)의 구술을 재정리함>

2. 감소요인

1) 내적 요인

(1) 양심의 가책

참전기간동안 경험하고 목격한 것들 중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게 하는 내적 요인으로는, 우선은 살아오면서 스스로 반복적으로 느끼는 양심의 가책을 들 수 있다. 양심의 가책 사례는 ① 주민과 월맹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차별 사격을 하거나 방화를 하던 순간의 모습이 자주 꿈속에 나타나거나 TV의 역사다큐멘타리를 보고 자연스럽게 회상하면서 느껴지는

것, 그리고 ②참전기간중 문란한 성관계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반복적인 후회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노년기에 이르러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아존중감이 훼손되는 것을 느끼는 심리는 노년기 특유의 선성화(善性化)에 의한 영향(김종오, 1997)으로 설명될 수 있다. 김종오(1997)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생의 終部에 이르면 선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마련인데, 이것을 노년기의 선성화라 할 수 있다. 노년기의 선성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결산의식에 따른 선성이고, 둘째는 사후세계에 대한 열망인 종교성에 따른 선성인 것이다. 즉, 자신을 이 사회에 가치 있는 존재로 증명하려는 본능과 사후세계를 의식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노년기 특유의 선한 가치관이 발동하며, 이러한 선한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여 참전중 행한 일들을 크게 후회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아존중감이 크게 감소하고 죄책감이 지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자가 재정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 단란한 가족들을 바라보기가 두렵고 악몽에 시달리는 더러운 인생〉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악몽에 시달리고 죄책감이 더해지고 죽어서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베트남이 누군지 민간인이 누군지 모르니 하여튼 어디서 총알이 날아와 한바탕 싸우다 전우들이 죽으면 눈이 뒤집혔고 명령에 따라 앞에 있는 움직이는 목표를 향해 총이건 포건 무조건 쏘아댔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며 그런 장면이 꿈에 자주 나타나고 TV 다큐멘타리를 보면 또 생각나고 한다. 단란한 가족들이 손잡고 다니는 것을 보면 내가 쓴 총에 맞아 희생된 애꿎은 가족들이 있으리란 죄책감에 바라보기가 두렵다.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은 더러운 인생이란 생각이 자주 든다...〈해병중위출신 참전용사(번호8)의 구술을 재정리함〉

〈사례 #2: 남편있는 여자를 그 집안에서〉

...그땐 스물 셋 넘어 몰랐지만 처자식과 손자가 있는 나이니 비로소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색도중 숲속 오두막에서 30대 여자를 만났는데 남편 어딨냐고 물으니 숲을 가리키며 어디 갔다고 했다. 우리와 할 수 있냐고 물으며 돈을 보이니 돈이 좋아서인지 저 옆방으로 가자고 하기에, 남편이 있는 여자인 줄 뻔히 알면서 그 집안에서 그걸(성관계) 몇 명이 돌아가며 했다. 그런 일은 아주 흔한 것이었고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했다는 게 문제다. 그런 생각을 두고두고 해보며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다...〈육군중사출신 참전용사(번호12)의 구술을 재정리함〉

(2) 고엽제 후유증

참전용사의 심신을 괴롭히는 또 다른 내적 요인은 고엽제 후유증이다.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자아존중감 훼손의 사례는 ①자신이 직접 겪는 신체적 고통을 접하며 희생양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인한 분노, 그리고 ②자손대대로 질병을 유전시킬 수

도 있다는 두려움이 자아존중감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자가 재정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 가려움에 잠 못 이루며 이슬비처럼 옷을 적시던 생각들〉

...나이를 먹을수록 후유증 때문에 잠을 못잘때가 많다. 한번 온몸이 가렵기 시작하면 몇시간을 긁다가 지친다. 가려움에 고통받는 밤이 많아지면서 나는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아온 쓰레기 같은 존재이기에 빨리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매복을 나가 풀숲에 머칠 밤낮을 꾸그리고 앉아 지새는데 숲 위로 미군 수송기가 지나가면서 약간 끈적한 물이 이슬비처럼 내려 전투복을 흠뻑 적시곤 했다. 그게 오늘의 이 고통을 주는 고엽제인줄 누가 알았는가? 미리 알려주었다더라면 雨衣라도 뒤집어 썼을 텐데 그러면 작전에 지장이 생길까봐서인지 알려주지를 않아 그 고엽제를 이슬비처럼 시원하게 다 맞고나서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는다. 난 정말 짐승처럼 속아 살아온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낀다...〈육군상병출신 참전용사(번호7)의 구술을 재정리함〉

〈사례 #2: 딸의 고통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나이 먹어가면서 나로 인해 자식이 고통받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내가 고엽제 후유증이 있으므로 해서 딸에게까지 유전되었다. 나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가끔 등과 허벅지에 물집이 생기고 가려워하는 것을 보며 내 딸의 고통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해본다. 그 딸이 이제 남자친구가 생겨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제발 손자만은 저 후유증이 전해지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딸의 고통을 볼 때마다 하늘을 원망하고 나의 업보를 생각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육군상병출신 참전용사(번호4)의 구술을 재정리함〉

2) 외적 요인

(1) 불편한 가족관계

참전용사의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외적요인으로서, 우선 고엽제 후유증과 참전중 경험한 일로 인해 가족관계가 불편해지면서 가족, 친지, 이웃들과의 갈등을 빚는 것을 들 수 있다. 불편한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자신의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불편을 겪으며 자신을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참전중에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과 자신의 거칠어진 성격에 대해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폭력성을 한탄하는 일등이 있다.

Dourmas, Margolin, and John(1994)의 연구에 의하면 성장기에 폭력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이러한 폭력경험이 학습화되어 성인기에 보다 더 큰 폭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김득성·김정옥·송정아(2000)의 연구는 성장기에 폭력을 행한 경험이 많은 노인일수록 폭력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욕설이나 소리지르기, 혹은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 공격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내 폭력을 행사할 가

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참전용사들은 전장의 살상과 파손등 극단적인 폭력성 환경에서 수년간 생활해본 경험이 학습화 과정을 통해 습관화되어 가족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러한 불편에서 오는 가족과 이웃의 냉담한 반응이 결국 노년기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자가 재정리한 것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병치레에 지친 가족들을 바라보며 번뇌함〉

...고엽제 후유증의 고통은 가족들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다. 우선은 치료법이 마땅치 않아 이병원 저 병원 전전하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면서 많은 돈을 쓰고 아내와 자식들은 간호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 매우 어둡고, 그 어두운 표정을 대하며 비참함을 느낀다. 가족들 고통 주는 게 말년의 내 팔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내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한다... <육군상병출신 참전용사(번호7)의 구술을 재정리함〉

〈사례 #2: 거칠어진 내 모습을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보며 한탄함〉

...전쟁이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일이다. 난 가까이서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았지만 저만큼 있는 적에게 총과 화염방사기를 쏘아 죽인 적은 있다. 그리고 허구헌날 죽이고 죽은 일을 접하다 보니 그런 일에 대해 무감각해져 남들과 큰 정서적 차이가 생겼음을 남들의 태도를 보며 느낀다. 내가 전투 중에 겪은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기회가 있는데, 나는 별 것 아니게 얘기하지만 가족들과 이웃은 그런 나의 경험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그리고 가끔은 거친 욕설도 자주 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생각을 자주 하다보니 이래저래 나를 따듯하고 부담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보다는, 거칠어진 내 모습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런 것을 오래 바라보며 전쟁이 나를 남과 어울리기 힘든 존재로 전락시켰다는 생각에 한탄스럽다... <해병중위출신 참전용사(번호8)의 구술을 재정리함〉

(2) 대중매체의 반응

참전용사의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또다른 외적요인으로서, 영화나 다큐멘터리 방송물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들 수 있다. 특히, 폭력은 모든 전쟁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유난히 베트남전의 폭력성이 대중매체에 많이 등장하고 그러한 대중매체 이미지에 국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참전용사들의 자아존중감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대중매체에서 묘사되는 베트남전의 부정적 이미지의 사례는 ①무차별적인 폭력을 다룬 미국영화 「Platoon」, 그리고 ②한국군과 베트남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나 누구인지 알지못하는 한국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혼혈아 「라이파이한」 이야기가 그 구체적인 사례인바, 조사대상자들이 구술한 것을 조사자가 재정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 미군의 어두운 면을 묘사한 최초의 영화이기에 더욱 반응이 크다〉

...살아오면서 전쟁영화를 많이 보았는데 대부분 미군은 잘생기고 선한 행동을 하고 독일군이나 일본군, 혹은 인민군은 표정부터가 험상궂고 나쁜 짓을 하는 악당이였다. 그런데 요즘 들어 미국영화 Platoon이 유행하면서 베트남에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단 강간을 하는 미군의 부정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된다. 그러다보니 미군을 따라나선 우리도 별 차이 있겠느냐는 반응을 접할 때가 있다. 전쟁이란 죽이고 죽는 일이다. 그런데 영화 Platoon이 나오면서 베트남 참전용사에 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세상에 나오니 그걸 본 주위사람들의 충격이 매우 큼을 피부로 느낀다. 사람들이 그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걸 믿기에 그럴 거라고 생각되어, 참전용사는 이제 세상의 낙인이 찍힌 집단이 되어간다는 불안감을 막을 수가 없다. 예전에는 그런 영화가 없다가 나이를 먹어 노년기에 그런 영화의 재물이 되어 사람들 보기가 민망하고 나의 존재 가치가 떨어짐을 느낀다... <육군중사출신 참전용사(번호12)의 구술을 재정리함〉

〈사례 #2: 베트남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부상하는 라이파이한 이야기〉

...베트남과의 교역이 늘어나 그곳에 공장이 진출하고 그곳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한국계 혼혈아 라이파이한 얘기가 TV나 신문이나 잡지 등에 나오는 것을 접하며 참전용사의 자부심이 크게 손상되는 것을 느낀다. 한국군이었던 아버지를 찾고싶다느니 어머니가 이 사진을 남겼다느니 하는 슬픈 스토리들이 가끔 나올 때마다 그런 일을 초래한 참전용사 집단으로서 가족과 이웃들 볼 면목이 없다. 임진왜란때 일본군이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하거나 2차대전때 미군이 독일에서 그런 일을 한 것은 인종이 같으니 표가 안나고, 그저 한국군 몇 사람의 일이 혼혈아로 눈에 띄니까 전체가 다 매도되는 것 같다... <해병중위출신 참전용사(번호6)의 구술을 재정리함〉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한 용사 14명을 대상으로 참전이 자신의 노년기 자아존중감에 미친 내·외적인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대다수인 9명은 참전이 전반적으로 현재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고 믿는 반면, 일부분인 5명은 감소시킨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참전은 노년기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향상시키는 경향이 우세하다.

둘째, 베트남 참전은 노년기 자아존중감에 일관되고 고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람에 따라 내·외적인 측면에서 향상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는등 다양하고 교차적인 영향을 보이는 요인이다.

셋째, 참전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은 용맹성 확립과 가문의 명예, 봉사활동에 대한 기억, 경제개발과 과학 및 의료기술 발전에 대한 확신, 대중매체를 통해 국가가 인정해 준 자랑스러운 일, 그리고 의지가 강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

는 일등이며 감소시키는 요인은 양심의 가책, 고엽제 후유증, 불편한 가족관계, 그리고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반응이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원 수강생이나 그들의 절친한 교우로서 서울에 거주하고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며 배우자가 있고 경제적으로 양호한 집단이기에, 연구결과를 전체 참전용사집단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이러한 제한점에 입각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다수 참전용사들이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선한 행동을 한 데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발굴사업이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선행사례를 집중 조명하는 표준화된 매체(예: 드라마, 책, 포스터)를 제작하여 참전관련 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와 대중매체를 통한 참전 소개가 사회로부터의 반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회적 반응이 결국 참전용사의 자아존중감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바, 대중매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선행에 대한 표준화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노년기에 이른 참전용사에 대한 고정된 좋은 이미지를 사회 속에 심어줄 때에야 비로소 세대간 갈등요인을 감소시켜 좋은 사회적 반응을 이루어 내고 용사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대중이 지니는 노년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인식은 사회구성원이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기피하거나 그 집단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격하시키며, 그들을 차별적으로 대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영숙, 2002). 그렇기에 참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정신·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참전용사의 복지향상을 위한 첫 단계로서, 그들에 대해 누구나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좋은 이미지 매체를 제작·배포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전용사의 노년기 부부생활 개선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평생교육기관이나 복지관의 여성교양강좌나 노인교실 부부관계 개선 학습프로그램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노인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참전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안 뒤 자신의 거칠어진 성격에 대해 가족과 주위사람들이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이 자아존중감 훼손의 큰 요인으로 나타났는 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의 첫걸음으로서 부부생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기 부부는 문제를 해결한다기 보다 주로 감정적인 조절을 하거나 체념, 회피, 또는 포기를 하는 등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인내로 대처하는 경향이 큰데(변화순, 1997; 윤현희·김명자, 1994), 이러한 경향은 과거 참전과정에서 과격해진 성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폭력성을 방치하여 자녀에게 그러한 습관을 대물림하게 하며 가족들의 외면이 참전용사의 자아존중감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최근 들어 개발된 노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이선미, 2003)을 참전용사들의 자조모임 장소(예: 참전동우회 지회, 재향군인회관)에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부가 더욱 정서적 교감을

이루는데 효과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대화주제들, 예를 들어 서로의 노년기 생활고충을 얘기하며 들어주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과 참전후유증과 관련된 고민을 공유하는 대화 등을 가족상담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참전용사와 젊은 세대간 문화적 유리(遊離)를 줄이기 위한 공유활동이 개발되어 점진적으로 보급되어야 한다. 현대의 젊은 사람들은 남북화해 분위기가 고조되어 안보의 중요성이 대한 인식이 저하되면서 과거 오래 전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에 대한 공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순응한 용병으로 인식하는데, 이에 대해 참전용사들은 매우 불쾌해 하고 있다(월남참전 전우복지회, 2003). 이러한 사회적 기류는 본 연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 되었는데, 용사들은 참전의 부정적 측면을 소재로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 참전용사들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전쟁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던 시대를 살아온 노년기 참전용사들과 남북관계에 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젊은 층의 이러한 견해차이 및 갈등은 결국 참전용사에게 현재의 가정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매우 이질적으로 평가하며 고립성향을 띄는 「문화적 遊離」(Seeman, 1972)의 원인이 되어 사회적 통합을 크게 저해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제 참전용사와 젊은 층과 정서를 교류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세대간 공유활동」(이영숙, 2000)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현충일이나 6.25 기념일이나 국군의 날 등 특정 기념일에 공공장소에서 참전용사와 청소년들이 함께 즐기는 활동프로그램을 보급하거나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참전용사방문이나 말벗 봉사 등에 확대하는 등, 다양한 공유활동이 개발되는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참전용사들 중 출신 兵科, 참전지역,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이 비슷한 노인들 또래 집단이 자율적으로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친밀하게 생활하며 많은 대화를 통해 고통극복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 격려하는 이른바 소규모 또래집단(peering group) 모임을 권장하는 복지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래집단은 자아개념의 발달과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주요 활동무대이며, 특히 노년기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중 하나로 우선 또래집단끼리 어울리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며 그 속에서 상호 존중감을 교류하거나 혹은 우울한 사건에 대한 짐착에서 벗어나는 흥미로운 공동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따라서 우선은 참전용사중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또래집단을 형성하도록 하는 계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같은 부대에서 같은 활동을 하고 나서 현재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경제수준으로 살고있는 용사들끼리 소규모 참전동우회를 만들어 불우이웃 머리깎아주기 활동이나(베트남참전전우회 서울마포구회, 2003) 베트남 방문 여행을 하는 등(파월국군동우회, 2003), 또래집단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참전관련 단체나 지역 사회 복지기관에서 적극적인 계몽지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참전용사의 노년기 생활에 대한 후속 연구조사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져, 연령대별, 가족관계별, 교육수준별, 참전기간별, 그리고 참전중 활동한 직책별로 구분된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에 대한 차별화된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노년기 자아존중감은 참전중에 처했던 상황과 현재의 경제사회상태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참전기간동안에 주로 수행한 임무특성과 현재의 경제사회상태별로 구분되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된 연구를 토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취약 집단을 규명하고 이러한 집단 특성을 토대로 한 전문화된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참전중 발생한 부정적인 활동내용에 대해 국가보훈처나 국방부등 정부기관에서 직접 그러한 활동의 배경과 효과를 설명하는 협조가 이루어져 참전용사가 왜 어떠한 행동을 하였으며 그러한 행동의 궁극적인 발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인에게 충격을 가한 행동을 경험한 해병 병사의 정서적 고통을 조사하는데 있어 그러한 행동의 발단은 민간인과 정규군을 혼동하게 만든 월맹군의 교란행위에 대한 자구책이었다는 설명(파월국군동우회, 2003; McNamara, 2003)을 제공하는 것이 용사들의 자아존중감 향상 상담프로그램에 반영되는 등 행위의 근본적인 배경을 포함한 자세한 조사 및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차후 참전용사 대부분이 70대 후반 고령에 이르러 주간보호나 장기요양등 노인보건의료 서비스의 주요 대상자가 될 때를 대비한 사례관리 실천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참전용사 32만중 약 22%인 7만명 정도가 고엽제후유증 의심 환자이며 이들중 5천명이상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2003), 그리고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처럼 후유증 증상과 더불어 찾아오는 자아존중감 손상 및 사회적응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용사들이 70대 후반 고령에 이르러 일반인들과의 공동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이들을 위해 특별관리가 제공되는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의 장기요양관리에 필요한 사례관리 실천모델이 개발되는 시험연구가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착수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시설 적응 교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욕구조사, 문제상황 측정, 병력 및 치료의욕 측정, 공식·비공식 사회적 지원체계의 수준등 장기요양 서비스 査定(Case Intake)(김숙경, 2001)의 실천모델 및 이에 필요한 정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험연구가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끝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참전용사의 특징적 징후와 사회적 배경을 참고로 하여, 이들의 부양부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전문화된 가족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이 낮은 참전용사의 수면장애, 가족들과의 대화나 교류 장애, 고엽제 후유증등 구체적인 상황과 이들의 교육수준,

경제상태, 결혼상태, 자녀수, 부양제공자에게 미치는 정서적 안녕, 신체적 건강, 사회생활, 재정상의 어려움과 불편감의 정도등 일반화된 부양부담 척도(이은희, 1997; 조유향, 1995)와의 상관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제별로 세분화된 부양가족 교육·상담 프로그램이나 상담전화 개설등 실질적인 서비스 체계가 지역사회 조직과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3년 11월 08일

□ 심사 일 : 2003년 1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12월 29일

【참 고 문 헌】

- 국방연구소(1998).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김도환(2001).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연구. *노인복지연구(한국노인복지학회지)*, 13, 113-144.
 김득성·김정옥·송정아(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15.
 김숙경(2001). 장기요양보호시설에서의 사례관리실천 적용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한국노인복지학회지)* 13, 29-54.
 김영숙(2002). 중·고등학생의 노인이미지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비교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1(3), 75-89.
 김종오(1997). 한국의 노인범죄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수(2000). 노인과 자살. *노인복지연구(한국노인복지학회지)*, 10, 25-45.
 대한민국 고엽제후유증 전우회(2003). <http://www.kaova.or.kr/>
 미디어다음(2003).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310/10/hani/v5211553.html>. 파병반대여론 자료실.
 변화순(1997). 부부간의 갈등과 해소. 여성한국사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217-253).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베트남참전전우회 서울마포구회(2003). <http://soldier.new21.org/>자원봉사 소개 게시판 검색
 박숙자(1978).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보건복지부(2001).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송미순(1991). 노인의 생활기능상태 예측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효식(1993). 노부모-성인자녀간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 간의 인과모형 탐색.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0-53.
 월남참전전우복지회(2003). http://kosvet.price.co.kr/kr_start.htm
 윤현희·김명자(1994). 남녀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적응감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4(1), 17-32.
 이선미(2003). 노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노년학회지*, 23(1), 93-112.
 이신숙외(1997). 성, 연령, 사회적 지원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61-172.
 이영숙(2000). 청년기 손자녀와 조부모의 공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

- 년학회지, 20(3), 1-16.
- 이은희(1997). 치매노인 부양가족원의 부담감소를 위한 사회적 업적
개입 전략.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유향(1995). 노인보건. 서울: 현문사.
- 파월국군 동우회(2003). 인터넷 홈페이지 <The Vietnam War For
Us><http://www.veterans.pe.kr/일반자료실에서 발췌>.
- 파월 의무부대 동우회(2003). 홈페이지 <자유의 십자군>
<http://www.vietvet.co.kr/vietwar/hist.htm>
- 한국노인문제 연구소(1997). 노인복지정책 연구, 97-03.
- 한국방송공사(2003). <http://find.kbs.co.kr/search.html?mode=to>
tal&keyword=베트남전 검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한국인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Series 2002-17.
-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1995). *Modern maturity*.
April-May edition.
- Anderson, D.(2002). *The columbia guide to the vietnam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Atchley, R.(1990). *Social forces in later life*. Wadsworth Publishing
Co. CA: U.S.A.
- Bloom, S.(1992). The national dilemma: can we heal ourselves?
Journal of Psychohistory, 19(3), 281-305.
- Bowman, J.(1986). *The vietnam war: An almanac*. cleveland: world
almanac publications, 1985. Paperback edition titled the world
almanac of the vietnam war. New York: World Almanac.
- Bowen, G. R.(1989). Marital sex role incongruency and marital
adjustment. *J. of family Issue*, 10(3). 409-419.
- Bowen, G. R. & Orthner, D. K.(1983). Sex-role congruency and
marital qualit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 223-
230.
- Butler, R. N.(1963).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Psychiatry*, 26, 65-76.
- Burtler, R. & Lewis, M. I.(1973). *Aging and mental health: positive
psychological approaches*. St. Louis: Mosby
- Coleman, P. G.(1974). Measuring reminiscence characteristics from
conversation as adaptive features of old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 281-294.
- Darley, M.(1984).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Routledge
Press.
- Doumas, D., Margolin, G. & John, R.(199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ggression across three generation s. *Journal of
Family Violence*, 9, 157-175.
- Giarrusso, R. & Bengtson, V.(1996). *Self-esteem*. In J. E. Birren(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 N.Y.: Academic Press.
- Hendin, H. and Haas, A.(1991). Suicide and guilt as manifestations of
PTSD in Vietnam Combat Veteran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5), 586-591.
- King, V. and Elder, G.(1997). The legacy of grand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848-859.
- King, L., King, D. & Fairbank, J.(1998). Resilience-recovery factors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female and male
Vietnam Veterans: Hardiness, postwar social Support, and
additional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2), 420-434.
- McNamara, R. S.(2003). In Retrospect: *The Tragedy and Lessons of
Vietnam*. New York: Vintage Books.
- Merriam, S. B.(1989). Butler's Life Review: How universal is i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30), 163-175.
- Modell, J. & Haggerty, T.(1991). The social impact of war. *Annual
Review of Sociology*, 17, 205-224.
- O'Toole, B. & Cantor, C.(1995). Suicide risk factors among Australian
Vietnam era draftees. *Journal of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25(4), 475-488.
- Parker, M.(1996). The mental health of war-damaged populations.
IDS-Bulletin, 27(3), 77-85.
- Reifman, A. & Windle, M.(1996). Vietnam combat exposure and recent
drug use: A national stud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557-568.
- Scanzoni, J. & Fox, G. L.(1980). Sex-roles, family, and society: The
seventies and beyond.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743-756.
- Seeman, M.(1972). Alienation and engagement. In A. Campbell & P.
Converse(eds.).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N.Y.:
Russel Sage Basic Books.
- Tucker, S.(2000). *Encyclopedia of the vietnam war: A political, Social
& Military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ietnam War Pictorial(2003). <http://www.vietnampix.combat.life.htm>
자료실중 Life & Sorrow 부분 발췌.
- Wilbanks, W. and Paul K. H. Kim(1984). *Elderly criminals*.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